

[HOME \(/\)](#) > [INTRO \(/news/articleList.html?sc section code=S1N1\)](#) > [OPINION LEADER \(/news/articleList.html?sc sub section code=S2N12\)](#)

# “원자력계 남겨진 숙제 해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훈 기자 | 승인 2025.02.17

[인터뷰]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1978년 고리 1호기가 턴키 방식으로 건설돼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기술 자립을 이루고 우리 고유의 원전을 개발해 자체 설계 건설과 운영을 통해 값싸고 질 좋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변화하는 정치 상황에 따라 원자력 관련 정책이 갈팡질팡했다. 지난 연말부터 정국이 불안하

고 향후 어떻게 정치 상황이 변할지 모르는 가운데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장<사진>이 제3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장을 만나 국내에서 원자력의 중요성과 원자력발전 확대에 따른 숙제, 원자력학회를 이끌 각오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제37대 원자력학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연말부터 정국이 불안하고 향후 어떻게 정치 상황이 변할지 모르는 가운데 한국원자력학회장에 취임하게 되어 여러 가지 고민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1978년 고리 1호기가 터키 방식으로 건설되어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로, 기술 자립을 이루고 우리 고유의 원전을 개발해 자체 설계 건설과 운영을 통해 값싸고 질 좋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자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에 이바지하는 것뿐 아니라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초석이 되고 수출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이 되어 우리나라의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한국원자력학회의 전임 회장님들께서 닦아놓은 토대와 성과를 바탕으로 기라성같은 학회 회원님들과 협력해 원자력계의 숙원을 하나씩 해결하는데 정성을 다할 생각입니다.

### **원자력학회를 이끌어 갈 각오와 방향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자력산업은 100년 산업이라 정권에 따라 정책이 갈팡질팡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됐던 원자력 생태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숨을 쉴 수 있나 싶더니 정국이 불안해져서 다시 또 원자력산업도 안개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계속운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포화상태와 안전한 관리, 신규 원전 부지확보와 고준위방폐물의 영구처분 부지확보, 원자력 수출의 확대 등 원자력계가 해결해야 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말했듯이 제가 학회장을 맡은 2025년은 정국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임기 일 년 동안 원자력의 주춧돌을 튼튼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보만리(牛步萬里)<sup>1)</sup>의 마음으로 묵이성지(默而成之)<sup>2)</sup>할 것입니다.

### **국내에서 원자력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저렴하고 안정적인 대량의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의 가치를 인식하고 원자력을 도입 및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의 신규 건설, 가동 원전의 계속운전이 추진되고 있고, 뛰어난 안전성과 활용성을 바탕으로 여러 유형의 다양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향후 산업의 전기화, 전기차 보급,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산업과 중화학공업 등에서 막대한 전력의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부존자원<sup>3)</sup>이 매우 부족한 나라입니다. 석탄이나 석유, 가스는 나지 않고 태양광에 필요한 일조량도 부족합니다. 적어도 3m/s의 속도로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어줘야 풍력 발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질의 바람이 부는 곳도 남해안이나 태백산맥의 대관령 같은 곳으로 한정되어 있어 풍력 발전을 확대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원도 없고 전력망이 섬과 같이 고립된 우리나라는 에너지안보가 절실하고, 무엇보다 산업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더군다나 원자력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탄소중립과 국민 보건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UAE 원전 수출에 이어 지난해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오는 3월에 최종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원자력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수출 산업이기도 합니다.

**무탄소전원 확대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도 좋지만 고준위방폐물 처분이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가 현재는 원전부지 내 저장소에 보관되고 있지만, 2030년 한빛원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전망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소가 포화되면 더 이상 원전을 가동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면서 저렴한 전력원인 원전을 멈추면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생명과 보건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전에 발전소 내 임시 건식저장시설을 확보하고 영구처분하기 전에 중간저장시설을 지어 안전하게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처분장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원자로에서 연소되고 나온 사용후핵연료는 세슘과 스트론튬 등 여러 가지 종류의 핵분열 물질의 붕괴열과 고준위방사성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간 안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용후핵연료는 국가가 폐기하기로 결정을 하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고준위방폐물)이 되는 것이지만, 아직도 구성성분에 약 95%의 우라늄과 약 1%의 플루토늄 등 핵연료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속로와 연계한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고 고준위방폐물의 독성과 부피를 대폭 줄이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한미핵주기공동연구(Korea-U.S. Joint Fuel Cycle Study)를 통해 파이로프로세싱의 핵비확산성과 기술적 타당성, 실용화 가능성,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속로연계 파이로프로세싱의 실증 실험과 상용화에 대한 결정은 미루어졌지만 한미공동연구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방안과 고준위방폐물로 중간저장을 통해 장기적 안전관리를 한 후, 최종 처분하는 방안에 대한 국가계획이 하루속히 확고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뒷받침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특별법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됐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 한국원자력학회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안은 화강암 암반에 심층처분하는 방식으로 공학적 최적화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처분장 면적과 처분 비용을 최소화하여 면적을 70% 줄이고 경제성은 30%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용 지하처분연구시설(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과 처분 부지확보를 병행 추진한다면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의 영구처분장 확보 계획보다 10여 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유럽의 'EU 텍소노미' 조건을 만족시켜 원전 수출의 걸림돌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지난해 2월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승인한

고준위방폐물 관리(운반·저장, 처분 및 부피·독성 저감) R&D 로드맵의 충실한 이행과 한국 원자력학회가 제안한 방안과 최신 동향을 반영한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갱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에 태백에 연구용 URL을 구축하는 것이 결정되어 다행이지만, 하루빨리 중간저장시설과 최종 처분부지가 확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강원 태백에 사용후핵연료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환경공단은 강원 태백에 사용후핵연료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건설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6월 URL 부지를 공모했으며 태백시가 유일하게 신청,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암종 적합성' '부지 적정성' '건설 용이성' '재해 영향' '주변 환경 영향' '균형 발전' '주민 수용성' '지자체의 지원 의지' 등 8개 기준을 두고 평가한 결과 태백시가 제안한 부지를 예정 부지로 확정했습니다. 이 시설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을 목적으로 지하 약 500m 깊이의 암반 지대에 구축되며, 실제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 순수 연구시설입니다.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뒤 2023년 건설에 들어가 2026년 준공할 예정으로 2030년 부분 운영을 시작하며, 시설 구축에 국비 5,138억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이 시설은 우리나라 지질 환경에 적합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해 향후 영구 처분시설 건설 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용될 것입니다. 또한 태백시에 연구 인력 유입과 관련 산업 발전을 통해 최대 3,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8,0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핀란드, 스웨덴 등 선진국의 지하연구시설과 유사한 연구 환경을 구축하여, 국제적인 처분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SMR과 관련해 세계 시장 전망 및 국내 기술수준, 향후 비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는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소형화 및 모듈화된 설계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인 차세대 원자로입니다. 소형원전은 300MW 이하의 원전을 말하는데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80종이 넘는 SMR이 개발되고 있어 2040년까지 약 3,000억달러의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출력 100MW)라는 소형원자로를 개발해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허가를 받았습니다. 2024년 9월에는 완전피동형 안전계통 도입으로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용량을 증대한 스마트100(출력 110MW) 원자로의 표준설계인허가를 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원자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캐나다에 수출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원자로 개발을 토대로 한수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력기술이 한국형 혁신 SMR(i-SMR)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i-SMR은 170MW 용량인

데 모듈화 설계로 건설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고 운전기간을 확대하여 경제성을 높이고 자연순환 냉각 방식과 피동형 안전계통으로 중대사고 확률이 10<sup>-7</sup> 이하로 안전성이 매우 높고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원자로입니다.

SMR은 기존 원전이나 화력발전을 대체하거나 전력망이 취약한 섬, 극지방, 오지 등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공정열을 공급하고 수소생산에 활용될 수 있고 해수담수화에, 선박과 우주선의 추진체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SMR은 매우 빠르게 출력을 조절하는 탄력운전 성능을 가지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풍력 발전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고 기후 변화에 따른 전력공급 불안정성을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SMR은 전력 생산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 적용될 핵심 미래 기술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자로로 원자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카이스트 원전학과에 4명이 입학하는 등 원자력 인력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원자력 전문인력이 대거 퇴직하고 있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어 생산인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원자력 전문인력의 유입이 줄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미래를 보고 학과를 선택할 텐데, 원자력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불안하다고 판단하니 지원하는 학생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원자력학회는 정권에 상관없이 정부의 지속적이며 일관된 원자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은 원전의 설계 건설과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도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 부처에도 원자력 전문가가 들어가서 올바른 원자력 정책을 세우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올해 원자력 전문인력 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다각적인 유인 방안과 양성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연구원에서 홍보협력부장, 원자력학회에서는 홍보협력이사 등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원자력은 처음에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핵무기 개발로 시작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로 핵무기와 방사선의 위험성을 알게 된 후 평화적 이용을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이 주창됐고 원전이 건설 이용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쓰리마일아일랜드 원전 사고(TMI 사고),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국민이 원전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핵단체의 잘못된 지식과 음모와 왜곡, 과장, 선동이 한몫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앞선 사고에 대한 분석과 대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 설비와 절차를 개선하고 인적오류를 제거하여 반세기 동안 안전하게 운영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계는 더 확실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고, 총체적인 원자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국민과 대화하고 올바

른 지식을 전파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국민과 이해 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하여 의사 결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이를 위해 전국의 교사와 학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원자력 교육과 대화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과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SNS와 유튜브 등에 다양한 콘텐츠를 올려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원자력방사선 바로알리기 교사직무연수 과정'을 수행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로 '옐로우케이크'를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종합학술지인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회에서 발행하는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NET)는 원자력 전 분야를 포괄하는 원자력 국제종합학술지로 1969년 창간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영어로 작성된 1,000편 이상의 논문이 투고되어 국내외 26인의 편집위원과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매월 5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논문 분야로는 1) Reactor Physics 2) Thermal Hydraulics 3) Nuclear Safety 4) Nuclear I&C 5) Nuclear Physics, Fusion, Laser, and Accelerator Technology 6) Nuclear Fuel Cycle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7) Nuclear Fuel and Reactor Materials, 8) Radiation Application 9) Radiation Protection 10) Structural Integrity Analysis and Plant Management & Maintenance 11) Nuclear Policy, Economics,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가 있습니다.

NET는 발전을 거듭해와 2007년에 SCI(E)에, 2008년 SCOPUS에 등재됐습니다. 원자력 전 분야를 포괄하는 원자력 종합학술지로서 방사선 분야 혹은 원자력 재료 등의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저널을 제외하면 원자력 관련 국제 종합학술지 순위로는 2019년도부터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원자력학회(1.9), 일본원자력학회(1.5)에서 발행하는 저널보다도 높은 피인용지수(2.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NET의 Journal Impact Factor(JIF)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Nuclear Science & Technology 분야 2023년도 40개 SCIE 저널 중에서 6위를 차지했고, Journal Citation Indicator(JCI)는 3위에 등극했습니다. JIF가 2년 논문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JCI는 3년 논문을 대상으로 4년에 걸쳐 인용횟수를 계산합니다. JCI는 JIF의 분야 간 지나친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JIF를 발표하는 동일 기관에서 발표하는 새 지표입니다. NET의 외국인 저자 분포(corresponding author기준)가 2019년 58%에서 2023년 61%, 2024년 66%로 계속 증가해 명실상부한 국제 종합학술지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피인용지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양질의 논문이 발표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원자력학회에서 올해 진행될 주요 행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행사 계획은 지난해 총회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추진받은 바 있는데, 1월 초에 이사회를 개최해 올해 행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5월에 춘계학술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하고 10월에는 추계학술대회를 경남 창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매 학술대회에는 약 1,700명의 회원이 참여해 워크숍과 논문 발표를 진행하고 특별강연과 시상식을 거행합니다.

춘계학술대회 기간에는 역대회장간담회와 평의원회를 개최하고 추계학술대회에는 정기총회와 평의원회를 개최하고 각 연구부회와 지부의 활동 성과와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3월에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의 최종 계약이 성사될 예정입니다. 이후 2009년 UAE 원전 수출에 관련된 기관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3월이나 4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국원자력학회 내 행사로 NET 논문 심사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가 4차례 열릴 예정이고, 안전 보고와 의결을 위한 이사회가 6번, 포상 및 장학위원회가 4번 개최될 것입니다.

외부행사로는 원자력 관련 기관의 기관장이 모여 현안을 토의하는 원자력유관기관협의회가 4월에 열리고 7월에는 원자력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제행사도 여러 개가 개최됩니다. 원자력 열수력국제학술대회인 'NURETH-21'이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부산 BEXCO에서 개최되고, 원자력수화학 국제학술대회 'NPC2025'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 IAEA, OECD-NEA와 국제회의가 다수 있고 미국원자력학회, 체코원자력학회와 교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위상이 매우 높아 원전 도입을 추진하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한국원자력학회와 교류를 원하는 회의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1월에는 학회 임원분들과 논의해 2025년의 업무를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저는 올해 동안 학회 임원분들과 함께 원자력계에 남겨진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 묵묵히 나아가려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포화가 다가오고 있고 EU 택소노미에 대비해 영구처분 부지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학술적 기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제정 필요성과 시급성을 알리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원자력 바로알리기 활동을 통해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겠습니다. 월성 원전의 삼중수소 문제와 후쿠시마 방류수의 오해를 바로잡았던 것처럼 국민이 바른 정보를 접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원자력을 신뢰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자력 전문인력 현황에 대한 조사와 수급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인구 감소 뿐 아니라 원자력 종사자의 대량 은퇴, 전공 지원자의 감소, 대부분의 원자력 유관기관의 지방 소재 등으로 전문인력의 수급이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안전과 미래 기술을 위해 원자력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원전 수출을 위한 지원 방안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원자력산업을 지속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교육과 홍보, 직원 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학회가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돕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원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동원전의 계속운전과 탄력운전의 기술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대형원전과 SMR의 신규 부지 확보 노력에 동참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한국원자력학회가 제도와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개선해 더 큰 도약을 하도록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임원의 임기조정이나 연구부회 활동, 행사 지원 등의 규정을 정비했으나 아직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이를 검토하고 회원 수를 증대해 좀 더 체계적인 학회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학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도 살펴보겠습니다.

올사년 한 해가 을씨년스럽지 않고 생명력이 넘치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원자력 종사자분들과 함께 열심히 분투할 것입니다.

이훈 기자 [hoon@kea.kr](mailto:hoon@kea.kr)

저작권자 © 전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훈 기자 기자